



관광객이 만든 소박한 영악함

# 파키스탄 북부 ‘뜨거운 샘’ 마을에서 만난 자히다(Zahida)

김진명 | 내일신문 기자

파키스탄의 가람차쉬마를 방문했다. 그곳에서도 한국에서 온 낯선 이방인에게도 따뜻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행객에게 순박하지만 끈질기게도 사진이나 볼펜, 사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탕을 주지 않았다고 돌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으니 잘사는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순수한 그들에게 괜한 물욕을 심어준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파키스탄 북부 ‘뜨거운 샘’ 마을에서 만난 자히다. 한 기둥대기 엄마다.

## 파키스탄의 순박한 관광지 가람차쉬마

파키스탄은 먹는 물에도 회색빛 석회가 가라앉아 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깨끗한 물이 귀하다. 그런데 파키스탄 북쪽 산악지대에는 말간 샘물이 솟아날 뿐 아니라 뜨거운 물까지 펄펄 쏟아지는 순박한 관광지가 있다. 뜨거운 샘(Hot Spring)이라는 이름의 가람차쉬마(Garam

Chashma)다.

가람차쉬마는 한국으로 치자면 부곡하와이쯤 되는 샘이다. 마을 왼편엔 폭이 2m가 넘는 계곡이 흐르고 마을 오른편 중턱에선 온천수가 샘솟는다. 흐르는 온천수를 따라 뜨거운 정도가 다른 다양한 온천이 상품화 돼있다.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깨끗한 목욕탕이나 온천수를 활용한 작은 수영장을 갖춘 호텔 등 제법

관광지다운 숙박시설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은 우리네와 사뭇 다르다. 온천목욕탕이라 해봐야 흙바닥 한가운데 풀을 갖춘 ‘순박한’ 모양새가 전부고 호텔 안의 목욕탕도 탕 안팎에 타일만 입혀져 있는데도 무척 ‘고급스러워’ 보일 정도다. 필자가 묵었던 숙소에는 뜨거운 물은 커녕 찬물도 나오지 않았다. 숙소 바로 옆을 흐르는 계곡 물을 퍼다 겨우 양치와 세수를 해결하곤 했다.

흔치 않은 관광마을(?)이라지만, 연애결혼도 하는 비무슬림이 10%나 된다고 하지만 가람차쉬마 역시 남성들의 동네였다. 마을의 처음과 끝을 잇는 바자르(시장)엔 작은 상점과 음식점, 조그만 여관 등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여주인 혹은 여성 점원은 없었다. 마을 운동장에서는

옆동네와 동네 대항 폴로경기가 벌어져 코흘리개들까지 북적였지만 여성들은 그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 낮선 이방인에게도 따뜻한 여성들

알고 보니 여성들을 위한 관중석은 따로 있었다. 마을 위쪽 산 중턱에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편편한 공터가 있었다. 여성들은 경기장이 한 눈에 들여다보이는 그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폴로 경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폴로를 즐기고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필자가 자동 카메라의 줌을 최대한 당겨 그들을 찍었지만 여성들의 모양새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여성용 관중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폴로경기장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여성들은 '집'에 있었다. 세 개의 바자르를 지나 숲길로 접어들니 소를 끌고 가는 젊은 여성이며 샘에 물을 길러 나온 여학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15살 자히다(Zahida Banu)를 만난 곳도 숲 속에 띄엄띄엄 들어앉은 조그만 동네였다.

낮동안 집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공간이다. 자히다네도 아버지와 삼촌들은 바자르에 일하러 나갔고 할아버지도 집 근처의 밭에 나갔다.



손님 접대를 위해 오디를 따고 있는 자히다네. 여자아이들도 오디나무 위에는 손쉽게 올라가곤 했다.

여자들만 있어서인지 그들은 남자 형제나 남편 없이 혼자 다니는 이방인 여자에 대한 궁금증을 감추지 않았다.

필자가 그들을 발견했다 싶었더니 어느 새 여자아이들이 손목을 끌어당겼다. 그 중 하나가 팔을 걷어 부치더니 집 앞의 작은 오디나무 위로 성큼 뛰어올라갔다. 엄마와 언니가 나무 아래서 커다란 천을 받치고 있는 동안 아이는 춤을 추듯 나무를 흔들었다. 오디는 금새 흐르는 물에 씻겨 접시에 담겨 나왔다. 손님 접대용이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자히다를 중심으로 갖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이름이며 몇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혼자 여행을 다닐 수

있는지... 사진 한 장 찍겠다는 이방인의 부탁에 쉬이 응할 뿐더러 먼저 나서서 자세를 잡아주기도 했다.

### 관광객이 만든 소박한 영악함

십대 소녀의 친절에는 소박하지만 영악한 이유가 깔려 있었다. 자히다는 가족사진을 찍은 뒤 집안에 있던 친척들을 모조리 끌고 나왔고 이어 주변에 사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옆집에 사는 친구네 가족도 덧붙여졌다. 그러더니 집안에서 낚은 사진첩을 들고 나왔다. 무슨무슨 날에 가족들이 모여 찍은, 사람들이 화면 안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인화 상태도 나쁜 사진들이 꽂혀있었다. 거기에 보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거였다.

파키스탄을 여행하며 곳곳에서 자히다같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요구는 주로 사진이나 볼펜(특히 목걸이) 사탕 등이었다. 순박했지만 끈질기기도 했다 - 어떤 마을에서는 사탕을 주지 않는다고 돌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다(ㅠㅠ).

그러나 라다크의 헬레나가 지적했듯 순수한 그네들에게 그 물욕을 심어준 건 어쭙잖은 문명의 이름으로 다가간 우리네, "잘 사는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아닌가.